# 하이데거
## 존재의 진리를 찾아서

# 하이데거
## 존재의 진리를 찾아서

초판 1쇄 발행 2025년 2월 28일

지은이 박찬국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242-0 9316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연구는 2022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하이데거

## 존재의 진리를 찾아서

박찬국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서문

이 책에서 나는 35년여에 걸쳐 하이데거에 대해 발표해 온 글들을 수정·보완하여 체계적인 통일성을 갖는 저술로 재구성하였다. 이미 다른 책들에서 언급했지만, 하이데거는 20세기 정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다. 20세기 거의 모든 철학적 조류,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뿐 아니라 마르쿠제(Herbert Marcuse)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이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철학, 실존철학과 현상학,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철학적 인간학, 언어철학, 과학이론 등에서 우리는 하이데거 철학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철학뿐 아니라 문학과 문예비평, 심리학, 신학, 생태학 등에도 하이데거가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이데거가 없었더라면 20세기 이후의 정신계는 전혀 다른 지형도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이데거의 사상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원인을 나는 그가 그 어느 사상가보다도 우리 시대의 위기가 근원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한 데서 찾고 싶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는 역사적·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를 궁핍한 시대라고 불렀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궁핍성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궁핍성을 자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현대를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데거식의 난해한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인들은 존재자들을 관리

하고 조작하고 지배하고 향유하는 데 빠져서 존재를 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철학자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시인은 성스러운 것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하이데거가 '오늘날에는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달아나 있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란 존재 내지 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스러움'의 차원이 사라져 버렸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시대에 존재자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된다. 하늘도 대지도 산도 강도 심지어 인간 자신도 한갓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면서 그것들의 고유한 존재는 무시된다. 산은 산으로서가 아니라 광물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강도 강으로서가 아니라 수력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간주된다.

하이데거는 20세기에 일어났던 두 번의 세계대전이나 나치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 지배 그리고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도 현대인들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에 깃들어 있는 성스러운 차원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오히려 경탄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성스러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한갓 기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계는 궁핍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이 시대의 궁핍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자신이 걸었던 사유의 길 전체에 걸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

이 책은 크게 5부로 이루어져 있다. I부에서는 현대기술문명이 갖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을 고찰한다.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은 흔히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사변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현대기술문명이 부딪힌 위기를 극복한다는 문제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나는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을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연관하여 고찰하는 것이 그의 존재물음이 갖는 내용과 의의를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도입부에 해당하는 I부에서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상을 고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현대기술문명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하이데거의 철학을 고찰하는 것은 독자들이 하이데거의 철학을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하이데거의 철학은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관련하여 하이데거의 철학을 해명하는 것은 그의 철학을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의 철학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극복」에서는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극복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상을 살펴본다.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청송 고형곤과 하이데거의 사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이데거 연구의 첫 물꼬를 텄던 청송 고형곤 선생의 하이데거 해석을 살펴본다. 청송 고형곤 선생 역시 현대기술문명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횔덜린의 시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실마리로 하여 하이데거의 사상을 고찰한다. 「고향상실의 극복과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에서는 하이데거의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 취임 강연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하이데거가 현대의

고향상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본다. 「고향상실과 인간소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하는 마르크스의 사상과 현대의 고향상실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하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대결이 갖는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려 했다.

II부에서는 하이데거와 나치즘의 연관과 아울러 하이데거의 윤리사상과 정치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하이데거와 나치즘」에서는 하이데거의 나치 참여 행적과 아울러 나치 참여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을 살펴 본 후, 나치 참여라는 문제를 실마리로 하여 하이데거의 존재 사상을 살펴본다. 「하이데거의 사상적 전회와 나치 참여」에서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하이데거가 과연 나치 참여의 실패로 인해 '전회라고 불리는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하이데거의 철학이 갖는 정치철학적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하이데거 철학과 전체주의」에서는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이 여타의 비판과 구별되는 점을 분명히 한 후,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떤 점에서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철학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신칸트학파와 후설 그리고 셸러의 가치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에서는 신칸트학파와 후설 그리고 셸러의 가치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을 실마리로 하여 하이데거의 윤리사상을 고찰한다. 「하이데거의 양심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에서는 하이데거의 초기 주저인 『존재와 시간』에서 개진하는 양심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의 유사성을 밝힘으로써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이 갖는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I부와 II부에 대한 이상의 서술에서 보듯이, 이 책은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나치 참여와 연관하여 하이데거의 사상을 고찰하는 부분을 앞에 배치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배치는 독자들이 하이데거의 사상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I부에서는 존재와 인간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상을 살펴본다.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8가지 명제」에서는 하이데거의 강의록인 『근본개념들』에 실려 있는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8개의 명제'를 중심으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히려 했다. 「운정 소광희 교수의 시간론」에서는 청송 고형곤 선생 이후로 우리나라 하이데거 연구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운정 소광희 교수의 시간론을 고찰한다.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에서는 동물의 존재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을 살펴보는 동시에 하이데거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실마리로 하여 인간이 갖는 특수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고찰한다.

IV부에서는 '불안과 본래적 실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초기사상을 살펴본다. 초기사상을 다루는 부분임에도 이를 후반부에 배치한 것은 하이데거가 후기사상에서 행하는 현대기술문명과의 대결을 이해할 때 그의 초기사상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기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서는 우선 초기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을 살펴본 후, 그것이 불안이라는 기분을 얼마나 사태에 부합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는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 주려 했다.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서는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이 갖는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려고 시도했다. 「유식불교의 삼성설(三性說)과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에서는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초기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의 연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두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초기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을 더욱 명료하게 파악하려 했다.

V부에서는 하이데거의 철학이 서양철학사에서 갖는 위치와 의의를 고찰하며 다른 철학자들과 하이데거를 비교·고찰한다. 「하이데거 철학이 서양철학사에 갖는 위치와 의의」에서는 서양철학사에 대한 하이데거의 파악에 구애받지 않고 서양철학사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갖는 위치와 의의를 고찰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이데거를, 플라톤, 헤겔, 니체, 후설, 포퍼, 하버마스와 비교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하이데거의 사상을 다각도에서 고찰함으로써 독자들이 하이데거 사상의 전모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는 이 책에서 각 주제에 대한 국내외 하이데거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면서 나의 생각을 개진하려고 했다. 하이데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 책은 하이데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일반 독자들도 I부의 첫 글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극복」을 먼저 읽으면 나머지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설서 수준을 넘어서 하이데거의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책을 선뜻 출간해 주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5년 1월

박찬국

**차례**

서문 4

## I 현대기술문명과 하이데거의 존재물음

###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극복

1. 현대는 가능성의 시대인가? 21
2. 현대기술문명의 본질과 위기 23
3. 현대기술문명의 극복 41
4. 전통 형이상학과 존재망각 54
5. 인간의 과제 65

###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청송 고형곤과 하이데거의 사상

1. 들어가면서 68
2.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청송의 사상 70
3. 나가면서 91

### 고향상실의 극복과 하이데거의 존재물음: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면서: 향수로서의 철학과 현대의 상황 93
2. 강연「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97
3. 전통 형이상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108
4. 고향상실의 극복과 하이데거의 존재물음 115

## 고향상실과 인간소외:
## 하이데거와 마르크스의 대화


1. 하이데거와 마르크스의 대화는 가능한가? 119
2. 인간소외의 원인과 극복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상 121
3. 인간소외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 133
4. 마르크스 사상의 한계와 마르크스에 대해서 하이데거 사상이 가질 수 있는 생산적 의의 137
5.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140


# II 정치철학과 윤리학

## 하이데거와 나치즘


1. 들어가면서 151
2. 하이데거의 나치 참여 행적 152
3. 총장직 사퇴와 하이데거의 나치 참여가 갖는 성격 155
4. 하이데거가 나치에 참여하게 된 역사적 배경 156
5. 하이데거의 정치 사상과 나치즘의 연관성 162
6. 하이데거 사상과 실제 나치즘의 공통된 정신적 기원: 1914년 이념 167
7. 고향과 조국의 철학으로서 하이데거의 존재 사상 169
8. 나가면서 180

## 하이데거의 사상적 전회와 나치 참여:
하이데거의 정치철학


1. 하이데거의 사상적 전회는 나치 참여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인가? 182
2. 하이데거 사상의 전회에 대한 푀겔러의 해석에 대한 비판 193
3. 사상적 전회와 나치 참여 사이의 관계 197
4. 『존재와 시간』과 나치 참여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 200
5. 『존재와 시간』과 자유민주주의 206
6. 하이데거 후기 사상의 반(反)전체주의적 성격 209
7. 하이데거의 존재 사상이 갖는 정치철학적 다의성 210


## 하이데거 철학과 전체주의


1. 서양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최근의 비판이 갖는 특성 212
2. 서양의 전통 형이상학은 왜 존재의 관점에 설 것을 요구하는가? 214
3.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망각 217
4. 하이데거 철학과 전체주의 223


## 신칸트학파와 후설 그리고 셸러의 가치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1. 가치철학이란 무엇인가 226
2. 가치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228
3. 가치철학과 니체 231
4. 현대기술문명과 가치철학 233


## 하이데거의 양심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근원적 반복으로서의 하이데거 철학


1. 하이데거와 아리스토텔레스 238
2. 양심과 프로네시스 241
3. 죽음으로의 선구와 프로네시스 243
4. 나가면서 245

## III 존재와 인간

###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8가지 명제


1. 하이데거의『근본개념들』 249
2.『근본개념들』이라는 강의 제목의 의미 250
3. '존재자 전체를 고려하라'라는 잠언에 대한 숙고 251
4. 존재의 성찰을 위한 주도어들 253
5. 나가면서 262


### 운정 소광희 교수의 시간론


1. 들어가면서 264
2. 인간과 시간의식 266
3. 시간의식과 종교 273
4. 영원의 문제 279
5. 나가면서 291


###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동물의 존재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분석


1. 동물의 존재방식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94
2. 동물의 존재방식에 대한 분석 297
3. 동물의 '세계 결여'와 인간의 '세계 형성' 309
4. 동물의 존재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이 갖는 의의와 과제 313
5. 하이데거 사상은 인간중심주의에 빠져 있는가? 318

## IV 불안과 본래적 실존


### 초기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
하이데거의 불안 분석은 얼마나 사태 자체를 드러내는가?

1.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325
2. 세상 사람으로서의 현존재 328
3. 불안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 332
4. 불안, 죽음, 양심 338
5.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이 갖는 다차원성 340
6.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343
7. 불안에 대한 새로운 파악 348

###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은 결단주의인가? 351
2. 『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본래적인 실존의 구체적 모습 353
3. 하이데거 철학에서 사랑 370

###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

1.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 사이의 대화 가능성 374
2. 키르케고르의 불안 개념 377
3.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 392
4.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 비교 403

### 유식불교의 삼성설(三性說)과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

1. 들어가면서 408
2. 정은해의 연구에 대한 검토 413
3. 권순홍의 연구에 대한 검토 422
4. 나가면서 447

## V 하이데거와 철학자들

### 하이데거 철학이 서양철학사에 갖는 위치와 의의


1. 하이데거, 막스 뮐러, 하인리히 롬바흐 453
2. 플라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의 철학 455
3. 실체존재론과 본질질서의 철학 456
4. 체계존재론과 무한한 방향의 철학 462
5. 근대 형이상학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술적인 체계 사유의 좌절과 새로운 철학 476


### 하이데거의 플라톤 해석


1. 들어가면서 481
2. 초기 하이데거의 플라톤 해석 482
3. 진리, 세계, 초월 484
4. 초기 하이데거의 플라톤 해석 496
5. 후기 하이데거의 플라톤 해석 499
6. 하이데거의 플라톤 해석과 지평융합 509


### 헤겔과 하이데거


1. 헤겔와 하이데거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 동향 511
2.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514
3. 하이데거 철학과 헤겔 철학은 어떻게 다른가? 531


### 니체와 하이데거


1. 니체와 하이데거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537
2. 근대문명에 대한 입장 차이 538
3. 정치적 입장 차이 540
4. 존재론의 차이 542
5. 자연관의 차이 544
6. 나가면서 560

## 후설과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

1. 들어가면서 566
2. 진리 문제와 후설의 지향성 개념 568
3. 진리 문제의 해명에 대한 지향성 개념의 기여 576
4. 후설 지향성 개념의 한계와 선술어적인 실천적인 진리 580
5. 근원적인 진리로서 현존재의 개시성 582
6. 전통적인 진리 개념의 기원에 대한 계보학 585
7. 나가면서 587

## 후설과 후기 하이데거의 현상학:
## 후기 하이데거의 '퓌지스의 현상학'에 끼친 후설 현상학의 영향과 관련하여

1. 들어가면서 589
2.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 590
3. 후기 하이데거의 '퓌지스의 현상학' 602
4. 나가면서 605

## 포퍼와 초기 하이데거의 과학관

1. 들어가면서 611
2. 포퍼와 초기 하이데거의 과학관 비교 614

## 포퍼와 후기 하이데거의 과학관:
##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에 대한 양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면서 631
2.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에 대한 포퍼와 하이데거의 견해 632
3.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에 대한 포퍼와 하이데거의 견해 638
4. 나가면서 645

## 하버마스의 하이데거 해석과 비판

1.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하버마스의 해석과 비판 649
2. 하이데거 철학의 근본적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한 하버마스의 견해 659
3. 하버마스의 하이데거 해석과 비판에 대한 고찰 664

참고문헌 678
찾아보기 687
Abstract 693

**일러두기**

[ ]는 인용문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가 삽입한 주다.

Martin

# I

## 현대기술문명과 하이데거의 존재물음

Heidegger

# 현대기술문명의 위기와 극복*

## 1. 현대는 가능성의 시대인가?

현대는 흔히 가능성의 시대라고 불린다. 이 말은 보통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말로 회자된다.

가능성이란 어떤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명이나 신이 자연과 역사를 주재한다고 믿었던 근대 이전의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운명이나 신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연을 변형하고 역사를 주체적으로 형성하려는 근대 이후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인간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운명이나 신이 모든 가능성의 원천으로 생각된 반면에, 근대 이후의 시대에서는 인간이 모든 가능성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술문명은 인간이 모든 가능성의 원천이라는 확신이 극에 달한

---

* 「하이데거의 가능성 개념: 과학 기술 시대에서 가능성 개념의 새로운 정초」(『존재론연구』 6집, 2001),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하이데거와 프롬의 사상」(『철학연구』 47집, 1999), 「하이데거의 기술문명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철학사상』 16집, 2003)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전에는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인간이 인간을 복제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제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로불사란 것도 이제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공상으로만 여겨지지는 않는다.

현대기술문명이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같이 보인다는 의미에서 현대는 실로 가능성의 시대인 것 같다. 그러나 과연 현대인들이 개척하고 있는 과학기술적인 가능성이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그야말로 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 오히려 그것들이 인류의 삶을 불가능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현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현대인들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을 극복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핵무기가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념한다. 생태계의 파괴가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전에는 소수의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갖가지 향락을 이제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태와 공허감 그리고 불안에 시달린다. 우울증이나 갖가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는 희망과 가능성의 시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체념과 좌절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

우리는 현대기술문명이 이룩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류의 미래는 어둡고 사람들의 정신적 삶은 궁핍한지 사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현대기술문명의 본질과 위기에 대해

그 어떤 사상가보다 투철하게 사유했던 하이데거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2. 현대기술문명의 본질과 위기

### 1) 현대과학기술의 본질

사람들은 흔히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과학기술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도구와 같은 것으로 선한 목적뿐 아니라 악한 목적을 위해서도,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 의해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겔렌(Arnold Gehlen)이나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와 같은 철학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표방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을 손이나 발 그리고 두뇌와 같은 인간의 신체 기관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예를 들어 현대의 자동차는 과거의 마차와 마찬가지로 발을 보완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과학기술을 인간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로 보는 견해를 '인간학적이고 도구적인' 견해라고 부른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대기술문명의 문제는 과학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가 중립적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의 사용에는 인간들의 자의(恣意),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계급의 이해나 국가적·지역적 이해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이해관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인간들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는 합리적이었지만, 목적을 설정하는 데는 비합리적이었다. 이제 과학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인간사회의 이성적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각성이 촉구된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이데거 역시 현대의 과학기술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인간학적이고 도구적인' 견해가 옳다(richtig)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현대의 과학기술은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과거의 과학기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학적이고 도구적인' 견해는 그것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그러한 견해가 참되지(wahr)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이 갖는 피상적인 일면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그것의 진정한 본질까지는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전근대적인 과학기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단순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라는 점만을 고려하면, 현대의 과학기술은 정밀하고 정교하지만 전근대적인 과학기술은 단순하고 원시적이라는 차이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현대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되었다고 본다.[1]

현대가 과학기술시대라고 불릴 때 이는 단순히 현대인들이 자동차나 비행기 등 옛날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과학기술문명의 산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교시대라고 불렸던 서양의 중세에 신에 대한 신앙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하이데거 전집 7권 *Vorträge und Aufsätze*, Vittorio Klostermann, 1978, 76쪽 참조.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학주의적 신념과 기술주의적 신념이다. 과학주의적 신념은 과학적 탐구행위야말로 존재자의 진리를 드러내는 유일하게 참된 방식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기술주의적 신념은 과학에 의해 파악된 진리를 응용하는 기술이야말로 인간이 부딪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실천적 방법이라고 믿는다. 단적으로 말해서 현대는 과학기술만이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기에, 서양의 중세인들이 신에 전적으로 의존했듯이 우리는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 시대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현대의 과학기술은 단순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종교적인 우상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서양의 중세에서 신이 진리와 선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과학은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되며 과학에 입각한 기술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인들과 중세인들에게 마차나 풍차 등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에게 과학기술은 도구 이상의 것이다. 서양의 중세인들에게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라 신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마차와 풍차 등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과학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신적인 존재와 같다.

물론 많은 현대인은 여전히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들을 신봉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전통적인 종교를 믿는 정치인들이 어떤 재난에 대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에게 기도해서 해결하자고 말한다면, 그는 전통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신에 호소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의해서 해결